

3개국 한 조면, '최종전은 이렇게'

FIFA, 2026년 월드컵부터 48개국 체제 16개조 방식 각조 1·2위 토너먼트 진출

현재 월드컵의 조별리그는 32개팀이 8개조(한 조 4개팀)로 나뉘어 치른다. 각 팀이 세 차례씩 맞붙어 순위를 가린다. 마지막 경기는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해 동시에 열린다.

응원팀의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타구장 라이벌팀 경기 결과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지금까지의 조별리그가 주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

2026년부터는 이런 재미를 느끼기 어려워 전망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년 월드컵부터 시행하기로 한 48개국 체제에서는 16개조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의 4개팀이 아닌 3개팀이 한 조

에 묶여 두 경기씩 가진 뒤 상위 2개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최종전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가 벌써 수면 위로 떠올랐다.

'A', 'B', 'C'팀이 한 조에 묶였다고 가정하자. A팀이 B팀과 1차전을, C팀과 2차전을 소화하면 자연스레 마지막 경기는 B팀과 C팀의 맞대결이 된다.

B팀과 C팀은 A팀의 최종 성적을 확인한 뒤 마지막 경기에 나선다는 이점을 안게 된다. 무승부만 거둬도 두 팀 모두 토너먼트행을 확정할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다.

박진감으로 가득해야 할 최종전이 김이 잔뜩 빠진 채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FIFA는 남은 기간 동안 불공평함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경기 방식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90분 경기 후 승패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차기를 통해 승리팀에 승점 2를 주는 방식의 도입도 거론하고 있다.

지난 10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48개국 확대 운영 방안의 옵션은 두 가지였다.

미리 시드 배정을 받은 16개국이 단판 승부를 통해 올라온 나머지 16개국과 현행 방식대로 예선을 치르는 안도 있었지만 FIFA가 한 팀이 결승전 포함 최대 7경기를 넘기면 안 된다며 난색을 표해 지지를 얻지 못했다.

/김민근 기자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출격 준비 완료

드라이버만 안정되면 충분히 상위권 진입 · 우승 경쟁도 벌일 수 있어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챔피언십과 경쟁하며 샷 감을 조율한 김시우(22·CJ대한통운)가 새해 두 번째 경기에 나선다.

김시우는 오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2016~2017 시즌 PGA 투어 '소니오픈'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은 투어 2년차 김시우에게 몇 안 되는 익숙한 곳이다.

김시우는 지난해 사실상의 데뷔전이었던 소니오픈 준비를 위해 2주 동안 와이알래이 컨트리클럽에서 연습 라운드를 풀었다. 그 때문인지 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올해는 소니오픈에 앞서 SBS 토너

먼트 오브 챔피언십'을 통해 지난해 챔피언십과 경쟁했다.

소니오픈은 새해 두 번째 대회다. 비록 출전 선수 32명 중 30위에 그쳤지만 미리 실전 경험을 쌓는 등 몸을 풀었다.

더욱이 지난해 대회에서 드라이버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고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전에 사용하던 드라이버로 출격 준비를 마쳤다.

최근 아이언샷과 퍼팅감은 괜찮기 때문에 드라이버만 안정되면 충분히 상위권 진입은 물론 우승 경쟁도 벌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한국 남자골프 '말형' 최경주(47·SK텔레콤)를 비롯해 강성훈(30·신한금융그룹)과 노승열(26·나이키), 김민휘(25)도 소니오픈에서 새해 첫 샷

을 날린다.

이 대회는 새해 첫 우승의 주인공 저스틴 토마스(미국)와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다.

저스틴 토마스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CIMB 클래식에서 우승한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히데키는 최근 출전한 6개 대회에서 우승 4차례, 준우승 2차례를 차지하며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즌 초반이지만 페덱스포인트 랭킹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다만, 두 차례 준우승을 차지한 대회 모두 토마스에 우승을 내줘 자존심이 상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만회하길 바란다.

/김민근 기자

'Future of Jeonbuk-전북의 미래'

전북현대, 2017 캐치프레이즈 발표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2017 시즌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했다.

지난 해 전북은 5년을 계획하여 10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인 '비전! 2020'을 외치며 팀의 5개년 슬로건 'Stand up for another'와 함께 시조별 캐치프레이즈를 선정 했다.

2016년 'Innovation of Jeonbuk-전북의 혁신'을 시작으로 '비전! 2020'의 첫 발을 내딛은 전북은 두 번째 해인 올해에는 'Future of Jeonbuk-전북의 미래'를 2017 시즌 캐치프레이즈로 선정 했다.

'Future of Jeonbuk'은 2017 시즌 클럽의 방향성을 전북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그 방향성의 중심은 유소년과 클럽 운영을 이끌어갈 프런트이며, 이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지향할 것을 뜻한다.

전북은 일찍이 유소년의 중요성을 인식해 올림피크 리옹과의 협약을 맺고 유럽의 선진 유소년 시스템을 익히며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유소년 코치와 선수들은 리옹 해외 연수를 통해 현장 교육과 문화를 직접 배워 익혔다.

또한 클럽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할 구단 프런트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한다. 지난 해 AFC

챔피언스리그와 FIFA 클럽월드컵을 통해 국제적인 행정 업무와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던 전북은 구단 행정 능력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프런트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전북 이철근 단장은 "유소년은 클럽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울과 같다. '비전!2020'의 의미인 5년을 준비해 100년을 바라보는 것처럼 유소년의 발전이 클럽의 100년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에도 전북은 유소년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절대 늦추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끝판왕' 오승환 WBC 참가

김민식 감독 "오승환 꼭 필요한 선수"

미국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끝판왕' 오승환이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한다.

WBC 대표팀 김민식 감독은 11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선동열, 이순철, 송진우, 김동수, 김광수, 김평호 코치와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오승환 대표팀 승선 여부를 논의했다.

김 감독은 회의 뒤 "오승환은 꼭 필

요한 선수다. 대표팀에 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현종이 괜찮다고 한다. 양현종이 빠졌다면, 선발투수를 뽑아야 했지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펜 투수를 보강하기로 하고 마무리로 오승환을 뽑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오승환에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으로 떠나기 전 통화에서 '무조건 가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승환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한국 복귀 시 시즌 50%(현행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WBC 코칭스태프는 여론을 의식해 오승환을 50명 예비명단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김 감독은 "오승환은 필요한 선수"라며 대표팀에 포함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냈다.

예상대로 김 감독은 오승환의 이력을 불렀다. 오승환은 WBC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만큼 소속팀 세인트루이스와 출전 여부를 놓고 타관을 지어야 한다.

/김민근 기자

이규혁, 스포츠토도 빙상단 감독직 자진 사퇴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출신 지도자인 이규혁(사진)이 결국 스포츠토도 빙상단 총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규혁은 11일 "지난해 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 상황에서 저 때문에 팀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까봐 안된다고 생각했다"며 "팀에 소속된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만뒀다"고 밝혔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단거리의 '소나무'와 같은 존재였던 이규혁은 2014 소치동계올림픽을 마친 뒤 현역에서 물러났다.

이규혁은 2016년 1월 창단한 스포츠토도 빙상단 지휘봉을 잡으면서 지도자의 길에 들어섰다.

스포츠도도 빙상단은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과 소치올림픽에서 여자 500m 2연패를 달성한 이상화(28), 쇼트트랙 스타 출신으로 스피드스케이팅 전향을 택한 박승희(25) 등이 합류해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규혁은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의 제인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

재센터 전무이사를 맡았다가 각종 의혹을 받았다.

중학교 후배인 장시호와 친분이 있었던 이규혁은 2015년 6월 설립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을 도왔다.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내세워 삼삼으로부터 16억원을 지원받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6억7000만원의 예산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규혁에게도 불뚱이 튀었다.

이규혁은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에 겪어야 했다.

스포츠도도 관계자는 "일래 이규혁 총감독의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31일까지였다. 당초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팀에 누가 된다고 판단해 계약 연장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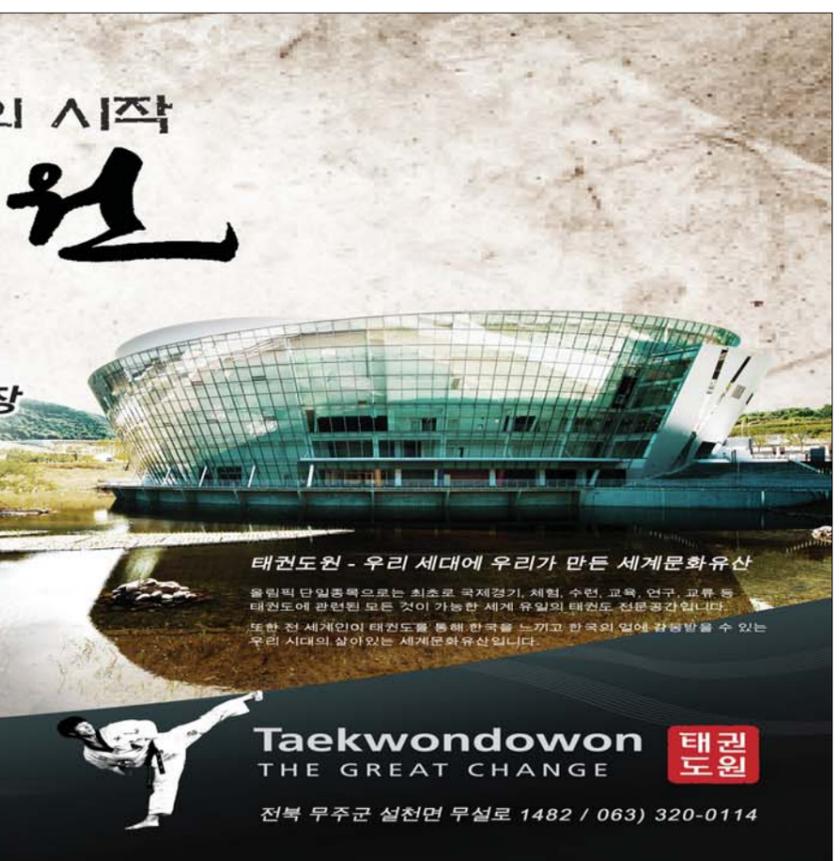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